

전남창조경제센터 출범

GS그룹 등 1390억 투자...여수에 본부·목포에 사무소

농수산 벤처 창업·육성 거점
청정자연 활용 웰빙관광 육성
친환경 바이오화학 생태계 구축

농수산·관광·바이오화학이 전남의 미래를 먹여살릴 창조산업으로 집중 육성된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전남센터)를 거점으로 관련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등 다양한 지원책이 예정돼 있다.

충남에 이어 12번째로 개소한 전남센터는 농수산 분야에 있어 전북·부산·강원·세종·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관련기사 2면〉

미래창조과학부와 전남도 및 GS그룹 등은 2일 오전 여수세계박람회장 콘퍼런스홀에서 박근혜 대통령,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이낙연 전남지사, 허창수 GS그룹 회장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센터 출범식을 갖고 이같은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오늘 출범하는 전남센터는 지역의 풍부한 생명자원과 전통문화에 첨단 기술과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선봉이 될 것"이라며 "전남센터를 통해 성장한 우리의 창업기업들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어지도록 정부, 전남도, 관련 기업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

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12번째로 출범한 전남센터는 본관 2370㎡, 숙소 608㎡ 등 모두 2978㎡ 규모로 총 21실에 입주벤처 등이 장기간 체류하며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주거형 창업공간을 갖추고 있다. 목포에도 아이디어 상담실 등을 운영한다.

전남센터는 앞으로 국내 전환경인증면적의 57%를 차지하는 등 최고의 전환경 농수산 기반을 보유한 전남의 강점과 국공립 농수산 연구기관, 대학·출연기관의 첨단기술을 농업에 접목해 새로운 농수산 벤처 창업을 지원하는 전국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혁신센터 내에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센터'를 설치해 원스톱 통합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레지던스 창업공간과 맞춤형 제작 시설을 활용해 예비창업자와 청년 벤처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창업교육을 제공한다.

혁신센터 최초로 예비창업자들이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맞춤형 제작시설을 이용해 시제품을 제작·테스트하고, 생산기술을 집중 연마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것이다.

전남 센터는 이같은 농수산·관광·바이오화학 벤처 창업 활성화, 지역 친환경 농수산 기업, 지역 창업·벤처·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모두 1390억원을 지원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염병 예방 시스템 구축 출입국 서비스 강화 집중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모든 시스템이 대회일에 맞춘 실전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관련기사 3·8면〉

2일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윤장현·김황식)에 따르면 오는 7월 3일부터 14일까지 광주와 전남·북, 충북에서 열리는 광주 U대회 준비가 마무리되고 막판 최종 점검이 한창이다.

선수단 임원, 심판 등 대회 참가자 모두가 안전사고 없는 '퍼펙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출입국, 수송, 선수촌, 경기장, 시상, 문화행사, 입장권 등 각 분야별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게 조직위의 설명이다.

조직위는 특히 최근 메르스 공포가 확산함에 따라 완벽한 전염병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참가 선수단과 시민들의 불안감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직위는 해외 선수단을 처음 맞이하는 출입국 서비스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미 입출국 영접부, 서울 영접부 등을 조기 구성했으며, 대회 개막 일주일 전인 오는 26일부터 7월17일까지 총 22일간 최상급의 출입국 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출입국 예상규모는 선수, 임원, 심판, 미디어, VIP 등 1만2000여명으로, 이중 80%가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천공항과 광주송정역에 출

“이젠 실전이다”

U대회 개막 한달 앞... 모든 시스템 대회일에 맞춰 전환
경기장 시설물 빠른 완공 박차... 퍼펙트 안전대회 목표



무등산 장불재 성화 채화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밝힐 성화가 2일 오전 광주 무등산 장불재에서 칠천년에 의해 채화돼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전해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메르스 공포 확산...사망 2명·광주 환자는 '음성'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했다. 사망자들은 모두 보건당국의 방역망에서 빠져 있다

가 뒤늦게 통제체계에 들어왔지만 결국 사망했다. 메르스와 관련한 정부의 방역 체계에 대한 거센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2·6면〉

환자수는 6명이나 늘어 25명이 됐으며 새로 추가된 환자 중에서는 3차 감염

자도 나왔다. 3차 감염자들은 모두 2차 감염자가 정부의 격리대상에서 빠져 있던 때 병원에서 이 2차 감염자를 접촉했던 사람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급성호흡기부전으로 사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환자 S(58·여)씨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2일 밝혔다. S씨는 전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5월 11일부터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달 15~17일 사이 국내 최초 메르스 환자 A(68)씨와 접촉했고 이후 상태가 악화해 치료중 사망했다.

한편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2일 현재까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환자가 4명이 나왔으나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채희종기자 chaeh@연합뉴스

D-30 광주 U대회 성공 기원

달샤벳

시민 한마당 음악회

오늘 오후 6시 40분
문화전당 5·18민주광장

알립니다

광주U대회 특별취재단 운영

세계 젊은이들의 스포츠 문화 교류 축제인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가 오는 7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광주를 중심으로 전남·전북 등지에서 펼쳐집니다. 광주일보는 개막 30일 앞으로 다가온 유니버시아드의 현장감 넘치는 뉴스를 전하기 위해 특별취재단

을 운영합니다. 정치부·경제부·사회부·문화부·체육부·사회2부·사진부 등으로 구성된 특별취재단은 대회 준비 상황과 경기 소식, 선수들의 생생한 화제를 발굴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 특별취재단

- ▲단장=박치경 편집부국장 ▲취재팀장=최재호 사회체육부장
- ▲취재=박지경·최권일·윤현석 차장, 박진표 기자(정치부), 임동률 기자(경제부), 채희종 부장, 김지을 차장, 이종행·김형호·백희준·박기웅 기자(사회부), 윤영기 차장, 김경인 기자(문화부), 박정욱 차장, 김여울 기자(체육부), 이종운 부국장, 고규석 차장, 손영철 기자(사회2부)
- ▲사진=나명주 부장, 최현배 차장, 김진수 기자(사진부)

15th 가슴으로 하나되는 아리따운 여정

2015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광주 상무시민공원 6월 14일(일)

종 목 10km / 5km
참 가 비 1만원, 전액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됩니다.
기 념 품 기능성 마라톤 티셔츠
참가문의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사무국 1688 9744
참가신청 선착순 접수 www.pinkcampaign.com
검색창에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을 입력하세요.

AMOREPACIFIC CORPORATION 한국유방건강재단 후원: 보건복지부, 한국유방암학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청, KBS광주방송총국, 광주MBC, kbc광주방송, 광주일보, 전남일보,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협찬: 헤라, 아리따움, 르가프, 55CHU